

광주 기초단체장선거 '역선택 주의보'

“역(逆) 선택을 주의하라.”
 광주 기초단체장 선거에 ‘역선택 주의보’가 내려졌다. 당내 경선이나 본선을 앞두고 자신에서 유리한 즉 상대적으로 약점이 많은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선거 전술로 곳곳에서 역선택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역선택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맞물려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5월3~4일 권리당원 투표 50% +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50%로 여론조사를 실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예비후보 간 두뇌전 민평당 등 야당, 약체 與 후보 역선택 가능성

한 다음 이르면 5월 5개 자치구 구청장 후보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현직 구청장에 맞서 민주당내 경선 4파전이 진행 중인 동구청장 선거의 경우 역선택 개연성이 높다.

지지 정당 성향을 먼저 묻은 뒤

ARS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긴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평화당 지지자들이 본선에서 맞붙길 원하는 여당 후보에게 지지표를 보내기 어렵지 않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 여당에서 강력한 후보를 올리기 보다 2, 3위권 후보가 올라오는 게 야당 입장에선 유리하다”는 논리다.

평화당이 구청장 후보를 낸 서구와 북구, 광산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전력으로 현직 임우진 구청장이 컷오프된 서구에서는 임 청장 지지자들이 ‘생애 음주운전 3회 벌금형’(1996~1999년, 1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전력이 있는 특정 후보를 선택하거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약체 후보를 역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 청장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사방방닷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3월 9~10일 광주 서구에 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구청장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33.1%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소속 재선 광주시의원 출신 고교 동문간 단일화가 진행 중인 북구에서는 고위 관료 출신 예비후보 측 지지자들의 역선택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

단일화에 나선 한 후보 측은 24일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징후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역선택은 당내 경선에서 1위 또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를 제치고 위한 ‘우회전략’이지만 자칫 본선에서 소속 당이 상대 정당에 패할 수도 있어 정치적 리스크 또한 크고 정치 도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역선택은 대의민주주의와 민심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역선택의 증거나 조직적 움직임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농성장방문한 조배숙 대표-장병원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당평화당 대표와 장병원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례대표 출당요구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당원 농성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설득하고 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상돈, 박주현, 정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으로의 합당을 반대했지만 출당을 시켜주지 않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남아있으면서 민주당평화당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남 서구청장예비후보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구매자 증가·매출 증대 도모

6·13지방선거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4일 “유동시장 개방과 대형 마트, 홈쇼핑 등 소비 형태 변화로 상권을 위협받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과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양동시장과 서부시장은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하

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동시에 상인들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업자 지원과 자활을 돕고 먹거리 특화사업과 테마골목 조성으로 다시 찾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쇼핑 기반시설 확충에는 주차장 확보, 조형물과 휴게공간 설치 등의 쇼핑환경 개선과 상인대학 개설로 고객 만족과 판매 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영의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구매자 증가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임택 동구청장 예비후보 “재활용 쓰레기 대책 마련”

6·13지방선거 임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24일 “재활용 시스템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을 공지한 것은 지난해 7월로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대란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재활용은 국가 정책에만 기댈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장기적 투자와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되는

폐기물 중 자원·에너지로 회수 가능한 양은 56%에 달하는데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효율적 자원이용이 되도록 자원순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재활용 시스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실천 공약으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입 ▲폐기물 처리 부담금 부과 ▲재활용산업 육성 등을 통해 소각·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폐기물 정책 수립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쓰레기 자원순환 교육 ▲재활용 보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적 지원과 감시를 제시했다.

뉴시스

남북회담 경험자에게 듣는다



박지원 “김정일, 미군 있어야 동북아 균형 이뤄진다고 말해”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박지원 민주당평화당 의원(전남 목포시·4선)은 “1차 정상회담 때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 3국을 굉장히 불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그래서 북한은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을 해야 동북아 세력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그는 “김 위원장은 중·러·일 3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병탄하고 호시탐탐 침략을 노렸지만 미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이에 DJ(김대중 전 대통령)가 놀라 그럼 왜 평소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셨고 불으니 김 위원장이 ‘그건 정치적인 것이라며 호탕하게 웃더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가 같은 해 8월 15일 우리 언론사 사장단과 평양을 방문했을 때 DJ가 미군 문제를 다시 물어보라고 지시했다”며 “그때 김 위원장과 두시간 반 동안 독대를 했는데 지난번 미군 주둔 허락을 얘기한 게 진짜냐고 불으니 똑같이 답을 하더라. 결국 중국을 못 믿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 긴장완화에 합의 했는데 이후 진전이 없어서 제가 8월15일 방북 때 이 얘기를 꺼냈다”며 “그러자 (북한 관계자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싶은

데 (남한의) 주민등록 컴퓨터 시스템 같은게 갖춰져 있지 않아 생사나 위치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박 의원은 “예전에 김영삼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만났을 때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니 그가 카타피와 후세인 사례를 보라. 미국을 믿고 비핵화를 했다가 다 죽지 않았나”라고 하더라”며 “(신뢰 관계 구축 없이) 비핵화를 하면 미국이 당장 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는 게 최근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결과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이뤄내려면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면서 김 위원장의 체면과 자존심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며 “김 위원장은 아버지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파격적이다. 이는 자신이 핵보유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자신감에서부터 나오는 태도라고 본다”고 풀이했다.

박 의원은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주고 우리는 비핵화를 하면 된다. 세일즈맨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 재앙이 될 수 있는 북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대륙간탄도미사일(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없애고 핵확산·핵수출까지 금지시키면 노벨평화상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